

2017. 11. 16

아시아 신용시장 분석 및 최근 동향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지역연구팀
김찬수 선임조사역

목 차

**Chapter I . 경제현황 및 경제협력 관계
–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Chapter II . 3개국 투자환경

Chapter III . 3개국 석유화학 산업

Chapter IV . 진출시 유의사항

Chapter 1 . 경제현황 및 경제협력 관계

–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India



1. 인도

□ 모디 정권 출범 이후 개방·개혁 정책 추진

- 인도는 남아시아에 위치한 연방공화국으로,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1991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자유화 및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
 - 2014년 5월 모디정권이 출범한 이후 부정부패 척결, 인프라 개발, 친기업적인 환경 구축 등 개방·개혁 정책 추진
 - 1985년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결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 한편, 파키스탄 및 중국과 북쪽 국경지역에서 영유권 분쟁 지속
- * 인도는 2012~16년 기준 무기수입 세계 1위 국가

□ 거대 내수시장과 풍부한 노동력 보유

- 인도는 13억 명(세계 2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엔경제사회국(UNDESA)에 의하면 2022년에 중국을 넘어 세계 인구 1위 국가가 될 전망
 - PwC(2012)에 의하면, 중산층 인구도 2010년 1.7억 명에서 2021년 3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GDP(2.5조 달러, 세계 6위) 대비 민간소비 비중 61%, 내수 비중 99%로 거대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중산층 인구 급증으로 내수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
- 2015년 기준 생산가능인구와 14세 이하 인구 비중이 각각 65.6%, 28.8%. 생산가능인구가 증가추세로, 향후 풍부한 노동력 공급이 예상됨.

□ R&D 투자 등 우수한 과학기술력과 높은 ICT 서비스 수출 비중

- 2016년 상위 3개 기업의 평균 R&D 지출비를 기준으로 조사대상 42개 국 중 인도는 14위로 대규모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 세계경제포럼의 2017~18년 글로벌경쟁력지수(GCI)에 따르면, 인도는 고등교육 관련 교육의 질이 조사대상 137개 국 중 34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것으로 평가됨.
 - 2013년 기준 대졸 이상 졸업생 중 과학 및 공학 졸업자 비율이 조사대상 102개 국 중 8위를 기록하는 등 과학 및 공학에 강점이 있음.
- 무역에서 통신기기, 컴퓨터, 정보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사대상 126개 국 중 아일랜드, 이스라엘, 코스타리카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함.

Chapter 1 . 경제현황 및 경제협력 관계

□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공공인프라 지출 등으로 7%내외의 성장 전망

- 2016 회계연도에는 화폐개혁*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7.1%로 둔화

* 화폐개혁: 2016년 11월 인도 정부가 '지하경제 및 통화위조' 근절을 목표로, 통용되는 주류 화폐인 500루피와 1,000루피 등 고액권 현금에 대해 통용을 금지하고 신권으로 교체하는 조치를 취함. 인도에서는 현금거래가 대부분으로 동 조치에 따라 현금부족·소비위축 현상이 나타남.

- 2017 회계연도에는 화폐개혁과 GST 시행으로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
2018 회계연도에는 민간소비 증가와 함께 지하경제 축소, 공공 인프라 사업 추진 등 내수 활성화로 7.4% 수준의 경제성장 전망

<인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인도 경제성장률	7.5	8.0	7.1	6.7	7.4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7. 10

□ 소비자물가상승률: 2017년 둔화 이후 2018년 확대 전망

- 2015년에는 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목표제 공식 도입,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4.9%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
- 2016년에 화폐개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식료품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안정목표(2.0%~6.0%) 범위 내인 4.5%의 물가상승률 유지
- 2017년에는 경제성장을 둔화 등으로 3.8% 수준의 물가상승률 전망. 2018년에는 총선(2019년 5월)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확대된 4.9%의 물가상승률 전망

<인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인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8	4.9	4.5	3.8	4.9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7. 10

Chapter 1 . 경제현황 및 경제협력 관계

□ 상품수지: 원유·금·다이아몬드 원석 수입, 석유제품·다이아몬드 수출

인도의 대외 수출	상품수출(억 달러)	인도의 대외 수입	상품수입(억 달러)
2016	2,603	2016	3,567
5대 수출국	수출(억 달러)	5대 수입국	수입(억 달러)
미국	420	중국	605
UAE	300	미국	204
홍콩	132	UAE	192
중국	89	사우디 아라비아	185
영국	86	스위스	149
5대 수출품	수출(백만 달러)	5대 수입품	수입(백만 달러)
석유(원유 제외) 및 조제품	27.0	원유	60.9
다이아몬드(비 공업용)	22.4	금	22.8
의약품	9.8	다이아몬드 원석	16.5
귀금속	9.2	석탄	11.7
쌀	5.1	전화기 및 송수신 기기	6.4

자료: WITS

□ 경상수지: 에너지 수입 확대 등으로 -1.5% 수준으로 악화 전망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원유 등 수입감소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감소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축소
-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저유가에 따른 원유 등 수입감소와 경제성장에 힘입어 2016년에는 -0.7% 수준으로 개선 추정
- 2017~18년에는 국제유가의 부분적 회복에 따른 에너지 수입 확대 등으로 -1.5% 수준으로 악화될 전망

<인도 GDP 대비 경상수지 추이 및 전망>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인도 경상수지/GDP	-1.3	-1.1	-0.7	-1.4	-1.5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7. 10

□ 해외직접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제16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

- 우리나라의 인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1차 금속, 전기장비 등 제조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2016년 12월 말 누계 기준 43.7억 달러(신규법인 수 864건)를 기록함.

□ 교역 현황: 우리나라 제11위 교역 대상국, 교역규모 감소세

- 인도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8위 수출대상국, 제23위 수입대상국

한·인도 교역 (백만 달러)	2014	2015	2016	주요 품목
수출	12,782	12,030	11,596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석유제품(윤활유)
수입	5,275	4,241	4,189	석유제품(나프타), 알루미늄, 정밀화학원료
교역규모	18,057	16,271	15,785	-

자료: 한국무역협회

Post-China: India or ASEAN?



Chapter 1 . 경제현황 및 경제협력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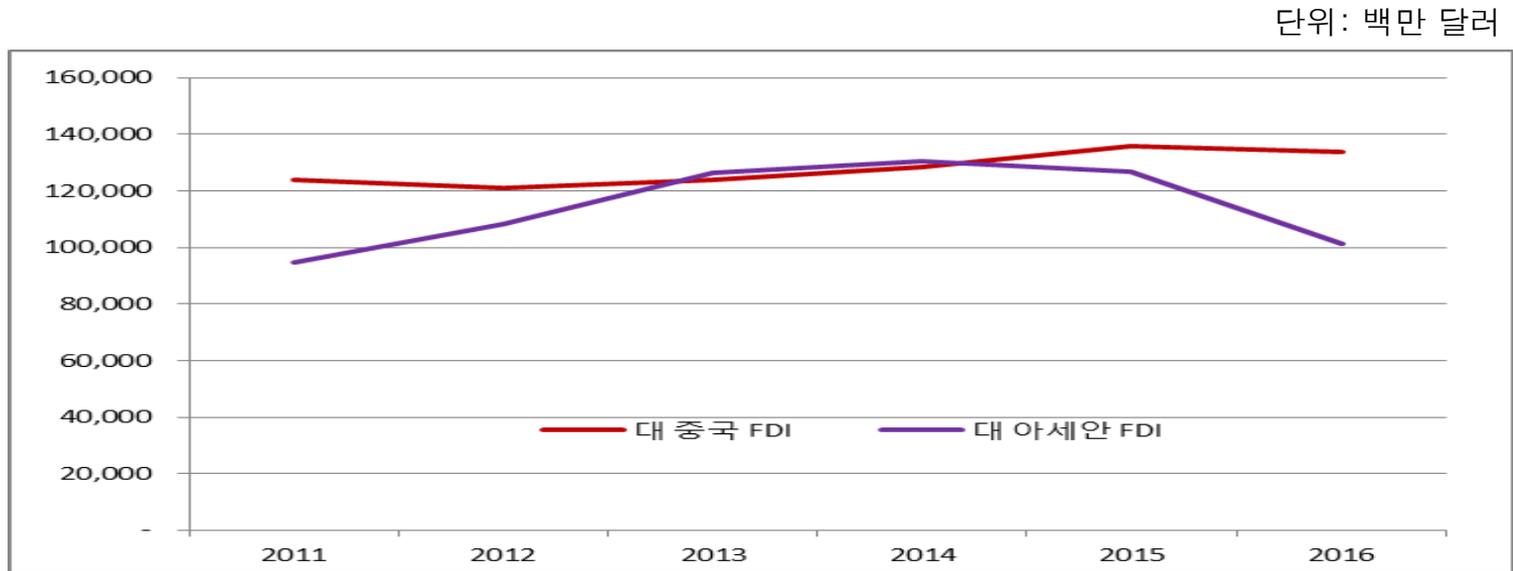
□ 'Post-China' 아세안

- 인구: 6억 4천 만 명 (2016년 기준)
 - 중위연령 (Median Age): 28.8세 ⇔ 37.0세 (중국)
 - 인구구성 비율: 25세 미만 43.8% ⇔ 30.7% (중국)
⇒ 중국보다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큼.
- GDP: 2조 7,213억 달러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인도 2조 4,545억 달러))
- 최근 10년간 경제성장률: 5.3%의 안정적 성장 기조 유지
- FDI 유입: 1,145억 달러 (중국 FDI 유입의 약 90%, 2011~16년 평균)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투자는 2010년부터 대 중국 투자를 상회 (교역도 2016년 1,100억 달러에서 2020년 2,000억 달러로 확대 추진)
- 한계: 정치체제 상이, 경제발전 수준 차이, 종교적·문화적 이질성
회원국간 소득 격차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미얀마의 42배)
외교적 이해관계 복잡 (로힝야족 사태, 남중국해 분쟁)

Chapter I . 경제현황 및 경제협력 관계

□ 대 중국 및 아세안 FDI (from the rest of the world)

- 전세계 기준으로 2011년~2016년 중 대 아세안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대 중국 투자의 90% 수준
 - 2013년과 2014년에는 아세안의 FDI 유치가 중국의 FDI 유치를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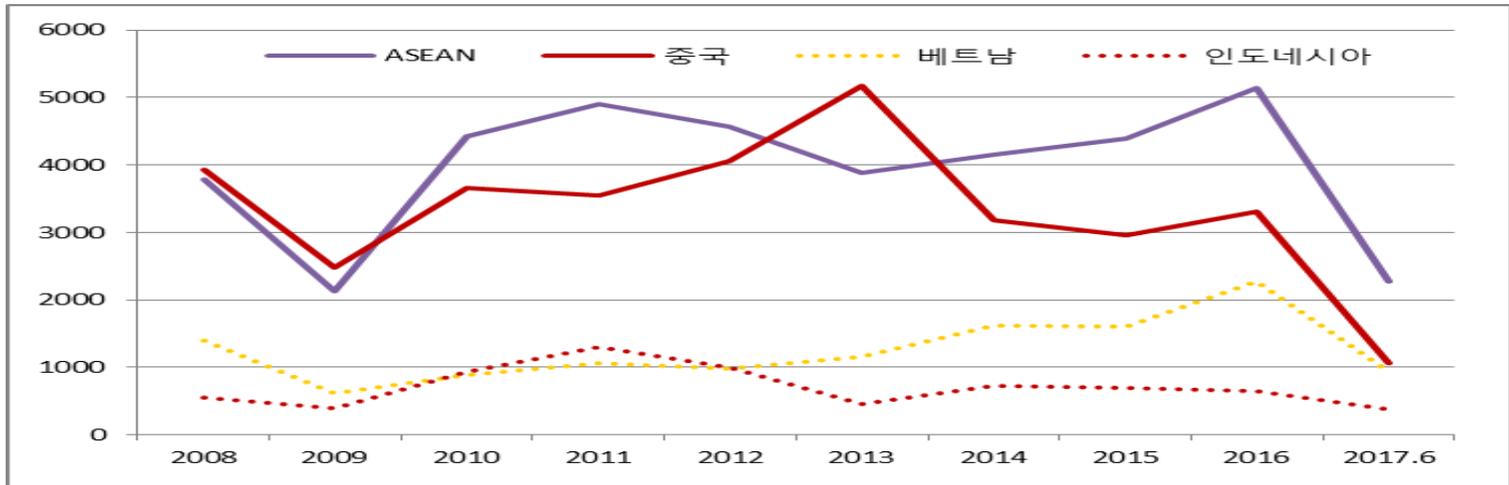


자료: UNCTAD.

Chapter 1 . 경제현황 및 경제협력 관계

□ 대 중국 및 아세안 FDI (from South Korea)

-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013년을 제외하면 2010년부터 매년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해외투자(연평균 약 40억 달러)는 대 중국 투자(연평균 33억 달러)를 상회
-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된 2016년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29.2억 달러로 대 중국 투자(33억 달러)에 근접하였으며, 2017년에는 6월 말 13억 달러로 대 중국 투자(10.6억 달러)를 추월



자료: 수출입은행.

Indonesia (Borobudur)



2. 인도네시아

□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ASEAN의 맹주국

-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ASEAN GDP 중 37%를 차지.
- 1998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수하르토 체제가 붕괴된 이후 민주화가 진전
 - 2004년 실시된 최초의 직선제 대선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정권 교체.
2014년 군부 권력층과 무관한 친서민적, 개혁적 성향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 취임
- 1995년 반동회의 개최를 통해 제3세계 진영에서 비동맹·중립 진영의 결속을 주도한 바 있으며, 중도 노선 및 다자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외교 노선을 유지

□ 풍부한 노동력과 견조한 내수기반 보유

- 2015년 기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67.1%를 기록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도 2016년 기준 1억 2,540만 명으로 저임 노동력이 풍부함.
 - 다만, 2014년 기준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이 3.3%로 UNESCO 평균(4.5%) 대비 낮으며, 고등교육과 직업훈련 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기업들이 고급·전문인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
-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은 약 2.6억 명(세계 4위)의 인구와 소득증가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 McKinsey는 2012년 9월에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전제로 인도네시아가 세계 16위 경제 규모에서 2030년에 세계 7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함.

□ 다양한 천연자원 보유

- 동남아시아 최대 산유국이자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석탄, 천연가스, 석유, 주석, 니켈, 목재 등 광물자원과 산림자원이 풍부함.
 - 주석 80만 메트릭톤(세계 2위), 니켈 450만 메트릭톤(세계 8위), 석탄 280억 톤(세계 10위), 천연가스 2.8조 m³(세계 14위), 석유 36억 배럴(세계 26위)의 매장량을 보유함.
- 연평균기온이 25~27℃에 달하는 열대성기후로 다양한 열대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 및 관광 자원도 풍부

□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증가 등 내수 확대로 5% 대 초반 성장 전망

- 2015년 경제성장률은 석탄, 천연가스 등 상품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 루피아화 가치하락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최근 6년 사이 최저치인 4.9%를 기록
- 2016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민간소비 회복 및 인프라 등 공공투자 증가에 힘입어 5.0%로 회복
- 2017~2018년에 민간소비 증가 등 내수 확대로 5%대 초반의 안정적 경제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5.0	4.9	5.0	5.2	5.3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7. 10

□ 소비자물가상승률: 2016년 3.5%에서 4% 내외로 확대 전망

-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통화 가치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및 연료보조금 감축에 따른 연료가격 상승 등으로 6.4%를 기록
- 2016년에는 환율 안정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 및 휘발유, 육류, 설탕 등 생필품 가격인하 정책에 힘입어 중앙은행의 목표치(3.0~5.0%) 범위 내인 3.5%로 둔화
- 2017~2018년에 국제 원자재가격 회복 등으로 수입물가가 상승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0% 내외로 확대될 전망

<인도네시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인도네시아 소비자물가상승률	6.4	6.4	3.5	4.0	3.9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7. 10

Chapter 1 . 경제현황 및 경제협력 관계

□ 상품수지: 팜오일·석탄 수출, 석유제품 등 수입

인니 대외 수출	상품수출(억 달러)	인니 대외 수입	상품수입(억 달러)
2016	1,445	2016	1,357
5대 수출국	수출(억 달러)	5대 수입국	수입(억 달러)
중국	168	중국	308
미국	162	싱가포르	145
일본	161	일본	130
싱가포르	112	태국	87
인도	101	미국	73
5대 수출품	수출(백만 달러)	5대 수입품	수입(백만 달러)
팜오일	11.1	석유(원유 제외) 및 조제품	9.9
석탄	6.5	원유	6.7
유연탄	6.4	전화기 및 송수신 기기	2.9
원유	5.2	밀	2.3
LNG	5.1	사탕수수 원당	2.0

자료: WITS

Chapter 1 . 경제현황 및 경제협력 관계

□ 경상수지: 소득수지 적자 등으로 -1.8% 수준의 적자 지속 전망

- 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는 중산층 증가에 따른 소비재와 인프라개발을 위한 자본재의 수입확대에 따라 2012년에 적자로 전환된 후 적자 지속
- 2016년에도 서비스·소득 수지 적자 축소와 GDP 증가로 인해 -1.8%로 개선 추정
- 2017~2018년에는 대외 차입비용 증가에 따른 소득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GDP 대비 -1.7~-1.8%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전망

<인도네시아 GDP 대비 경상수지 추이 및 전망>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인도네시아 경상수지/GDP	-3.1	-2.0	-1.8	-1.7	-1.8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7. 10

Chapter 1 . 경제현황 및 경제협력 관계

□ 해외직접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제10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

-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의복 및 모피제품, 섬유제품 등 제조업 위주. 투자금액은 2016년 말 누계 기준 96.2억 달러(1,990건)를 기록.

□ 교역 현황: 우리나라 제13위 교역대상국, 무역수지 적자 지속

- 2016년 말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제14위 수출대상국, 제11위 수입대상국. 석탄, 천연가스 수입으로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유지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 양국간 교역을 2022년까지 약 2배(300억 달러)로 확대 추진).

한·인니 교역 (백만 달러)	2014	2015	2016	주요 품목
수출	11,361	7,872	6,609	석유제품(경유, 휘발유), 편직물, 철강판, 합성수지, 합성고무
수입	12,266	8,850	8,285	석탄, 천연가스, 동광, 의류
교역규모	23,627	16,722	14,894	-

자료: 한국무역협회

Vietnam (Ha Long Bay)



3. 베트남

□ 우리나라의 제4위 수출 대상국이자 투자 대상국

- 수출: 중국과 미국, 홍콩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4위 수출 대상국
- 투자: 미국과 중국, 케이만군도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4위 투자 대상국
- 전통적인 농업국이었으나 제조업 부문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특히 전자제품과 섬유·의류제품 수출비중이 높음.
- 당서기장, 총리, 국가주석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며, 부정부패 척결, 국영기업 개혁, 외국인투자여건 개선 등 개혁 조치 추진
- ASEAN, TPP, RCEP 등을 통해 역내 경제통합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한편, 중국과는 남중국해(베트남 동해) 해상영유권 분쟁으로 관계 악화 가능성

□ 꾸준한 수출지향적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으로 수출 확대

- FDI 유입은 2012~2016년 중 연평균 102억 달러 수준. 글로벌혁신지수(GII)에 의하면 베트남의 GDP 대비 FDI 순유입은 128개 국가 중 29위로 높은 수준임.
- 외국인투자기업이 2016년 베트남 총수출액의 71.5%를 차지하는 등 수출 증가는 대부분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이루어짐.
- 외국인투자의 70.5%가 휴대전화, 전기, 전자, 섬유 등 제조업이며, 또한 제조업이 수출의 75%를 차지함.

□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지속적 증가로 저임 노동력이 풍부

- 2015년 말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70% 수준으로 아시아 상위권임.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도 2016년 말 약 55백만 명으로 추정됨.
-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국민 기본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으며, 과거 남베트남 시절의 자본주의 시행 경험을 보유하여 경제체제 전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글로벌혁신지수(GII)에 의하면 베트남은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이 128개 국가 중 21위로 평가되는 등 **노동력의 질이 양호함.**
- * 한편, 베트남은 낮은 노동생산성, 관리자급 전문인력과 숙련노동력 부족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개발 투자를 늘리고 있음.

Chapter 1 . 경제현황 및 경제협력 관계

□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증가 및 FDI 확대로 6%대의 경제성장 지속

- 2014~15년에 성장률은 전자 및 섬유산업 등 제조업 수출 호조와 소비심리 회복,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로 6%대로 회복
- 201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민간소비 진작,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등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증가로 6%대 성장 지속

* FDI 유입액 추이(억 달러): 89('13년)→92('14년)→118('15년)→126('16년)

- 임금상승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2017~2018년에도 6% 초반의 안정적 경제성장세 지속 전망

<베트남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베트남 경제성장률	6.0	6.7	6.2	6.3	6.3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7. 10

Chapter 1 . 경제현황 및 경제협력 관계

- **소비자물가상승률: 국제원자재 가격회복, 임금상승에 따라 4% 대로 확대 전망**
 - 2015년에는 소비심리 회복, 확장적 통화정책 실시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세 등으로 물가가 0.6%까지 하락
 - 2016년에는 의료보조금 축소, 학교수업료 인상 및 연말 베트남 동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2.7%로 상승
 - 2017~20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원자재 가격회복, 임금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상승한 약 4% 대를 기록할 전망

<베트남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베트남 소비자물가상승률	4.1	0.6	2.7	4.4	4.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7. 10

Chapter I . 경제현황 및 경제협력 관계

□ 상품수지: 전자제품 등 수출, 석유제품 등 수입

베트남 대외 수출	상품수출(억 달러)	베트남 대외 수입	상품수입(억 달러)
2015	1,620	2015	1,658
5대 수출국	수출(억 달러)	5대 수입국	수입(억 달러)
미국	335	중국	494
중국	166	한국	276
일본	141	일본	142
한국	89	기타 아시아	109
홍콩	70	태국	83
5대 수출품	수출(백만 달러)	5대 수입품	수입(백만 달러)
전자 송신기기 및 카메라	25.1	전자집적회로	12.6
전화기 및 송수신 기기	5.0	전화기 및 송수신 기기	9.5
자동차료처리기계	4.2	석유(원유 제외) 및 조제품	6.0
전자집적회로	4.1	대두유 오일-케이크 및 유박	2.0
원유	3.8	인쇄회로	1.9

자료: WITS

□ 경상수지: 흑자 유지되나 GDP 대비 1% 대로 하락할 전망

- 전자, 섬유 제품 등 제조업 부문의 수출 호조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지속으로 경상수지 흑자 지속
- 2016년에는 휴대전화 등 수출 확대와 자본재 등 수입 증가세 둔화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폭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4.1%로 크게 상승 추정
- 2017~2018년에는 자본재 수입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축소 등으로 인해 GDP 대비 1% 대로 하락할 전망

<베트남 GDP 대비 경상수지 추이 및 전망>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베트남 경상수지/GDP	4.9	-0.1	4.1	1.3	1.4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7. 10

Chapter 1 . 경제현황 및 경제협력 관계

□ 해외직접투자 현황: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대한 최대 투자국

○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4년 연속 베트남에 대한 제1위 투자국. 우리나라 입장에서 베트남은 제4위 투자대상국(2016년 기준)으로 2016년 말 누계 기준 투자금액은 약 153억 달러

– 2016년 기준 대 베트남 투자는 23억 달러로 대 아세안 투자(51억 달러)의 약 45% 차지

– 2017년 대 베트남 ‘제조업’ 투자(7.1억 달러)는 중국(6.2억 달러)을 추월

□ 교역 현황: 우리나라 제4위 교역대상국, 교역규모 지속 증가

한·인니 교역 (백만 달러)	2014	2015	2016	주요 품목
수출	22,352	27,771	32,630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인쇄회로, 삼성수지
수입	7,990	9,805	12,495	의류, 무선통신기기, 신발
교역규모	30,342	37,576	45,125	-

자료: 한국무역협회

4. 3국 경제 현황 및 전망 비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비고
경제성장률	6~7% 대	5% 대	6% 대	인도네시아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GDP 대비 경상수지	-1.5% 수준	-1.8% 수준	1% 대	인도, 인도네시아는 경상수지 적자 예상
GDP	약 2조 달러	약 9천억 달러	약 2천억 달러	베트남은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
신용등급	BBB-	BBB-	BB-	베트남은 아직은 투자 비적격 등급
GDP 대비 공공부채	약 52%	약 31%	약 59%	베트남 및 인도는 국가 재정이 취약

Chapter II . 3개국 투자환경

□ 인도: 전반적 투자환경은 아직 열악한 편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8 보고서('17년 10월 발표)에 의하면, 인도의 기업경영여건은 조사대상 190개 국 중 전년 130위에서 100위로 상승함.
 - 소액투자자 보호(4위), 전기공급(29위), 자금 조달(29위) 등은 양호한 반면, 건축인허가(181위), 법적분쟁해결(164위), 창업(156위), 재산권 등록(154위), 수출입절차(146위) 세금 납부(119위) 등에서 행정처리 절차가 많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2017~18년 글로벌경쟁력지수(GCI) 순위는 137개 국 중 40위이나 인구 100명 당 광대역 이동통신 가입자수(124위) 등 기술 준비도 (Technological readiness) 부문 경쟁력은 107위를 기록
 - 특히, 부패, 열악한 인프라 외에 높은 세율이 사업상 애로사항으로 지적

□ 인도: 'Make in India' 정책 등으로 해외투자 활성화 노력

- 2014년 12월 모디정권은 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한 이후,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해외투자 유치에 적극적임.
 - 제조업 육성,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투명성·효율성·예측가능성 제고, 인프라 개발, 사회보장 확대, 교육·보건·수자원 개선 등으로 구성
- 제조업 활성화 정책인 'Make in India' 등을 적극 추진하여 해외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자동차, 화학, 정보통신, 의약 등 총 25개의 제조업 분야를 육성하여 제조업 비중을 '15년 17%에서 '22년까지 25%로 확대할 계획.
- '상품서비스세(GST) 단일화 법안'이 2017년 7월부터 시행되어 해외투자유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인도네시아: 전반적 투자환경 개선 추세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8 보고서('17. 10월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기업경영여건은 전체 190개 국가 중 전년 91위에서 72위로 상승함(중국 78위).
 - 전기공급(38위), 사업청산(38위), 소액투자자 보호(43위), 자금조달(55위)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법적분쟁해결(145위), 창업(144위), 세금 납부(114위), 수출입절차(112위), 건축인허가(108위), 재산권등록(106위) 등 부문에서 행정처리 절차가 많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2017~18년 글로벌경쟁력지수(GCI) 순위는 조사대상 137개 국 중 36위이나, 노동시장 유연성이 123위로 평가되는 등 노동시장 효율성은 96위로 하위권
 - 부패, 열악한 인프라와 함께 관료주의, 정부 불안정 등이 사업상 애로사항으로 지적됨.

□ 인도네시아: 규제완화 등 외국인투자 유치 추진 지속

- 2009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2015년 이후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동 서비스를 제공.
- 2015년 10월, 발전 플랜트, 광업 프로젝트의 경우 2~3년간 자본재 수입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제공함.
- 2016년 5월 외국인투자 규제완화로 냉동창고, 영화관, 일반 식음료 업종 등 10개 분야의 경우 외국인이 100%, 백화점, 의료, 이동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등은 67%까지 출자 가능함.

□ 베트남: 전반적 투자환경 상대적으로 양호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8에서 베트남은 190개국 중 전년 82위에서 **68위로 상승함**. 인도네시아(72위), 필리핀(113위)보다는 높지만 말레이시아(24위), 태국(26위)에 비해서는 낮은 **중상위권** 수준임.
 - 세부 항목별로는 건축허가(20위), 자금조달(29위)의 순위가 높은 반면, 사업청산(129위), 사업개시(123위) 부문이 크게 취약
- 2017~18년 글로벌경쟁력지수(GCI) 순위는 137개 국 중 55위이며 수출(11위) 등 시장규모(31위)가 상대적으로 긍정적 요소로 언급됨.
 - 반면, 부패와 함께 부족한 전문·숙련인력이 사업상 애로사항으로 지적됨.

□ 베트남: 2015년 新투자법 및 新기업법 시행으로 투자환경 개선

- 2015년 新투자법 시행으로 소규모 투자지분(51%)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사업 등록 절차 간소화, 투자 업종 확대, 투자 등록증 허가기간 (45일→15일)단축 등이 시행됨.
- 2015년 新기업법 시행에 따라 국내외 구분없이 투자자는 기업등록증 (ERC) 발급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해져 해외투자자의 법인 설립이 용이해짐.
 - 다만 외국인출자지분이 51%이상일 경우에는 기업등록증(ERC)와 투자등록증명서(IRC)를 모두 신청해야 해야 함.

Chapter III. 3개국 석유화학 산업

Chapter III. 석유화학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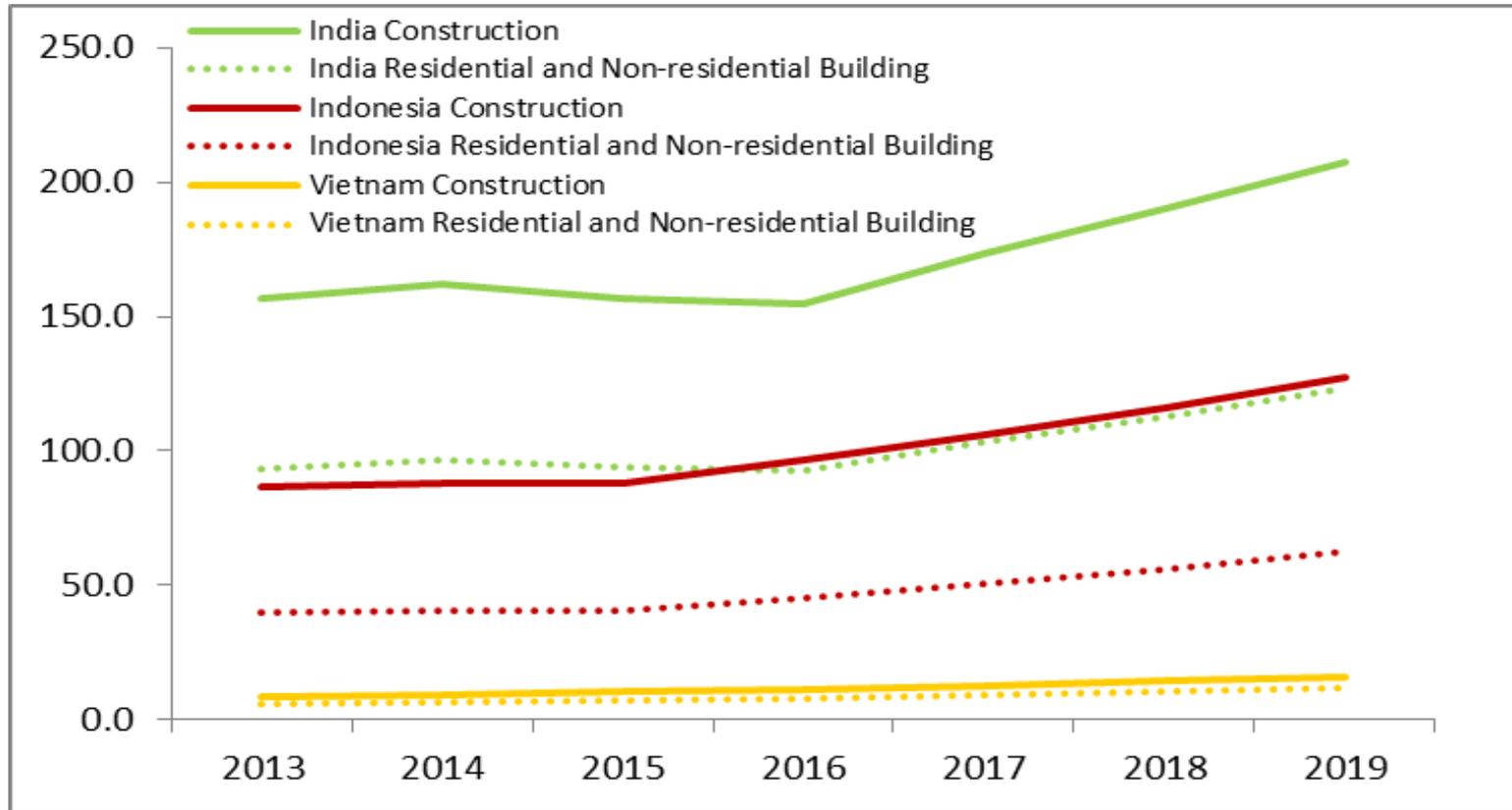
□ **건설 산업 동향 및 전망:** 한국 2017년 해외건설수주(인도 2위, 베트남 7위, 인니 10위)

인도	○ 인도 건설 산업은 2016년 1,55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과 함께 정부 주도 개발계획 등으로 2018~2019년 약 6.3% 내외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도 약 6.3% 내외 성장이 전망됨.
인도네시아	○ 건설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동남아 최대 수준인 1,000억 달러. 2018~2019년 약 6.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은 8.4% 내외 성장이 전망됨.
베트남	○ 건설시장 규모는 약 110억 달러로 추정. 2018~2019년 평균 8.6% 내외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은 평균 9.5% 내외 성장이 전망됨.

자료: BMI.

Chapter III. 석유화학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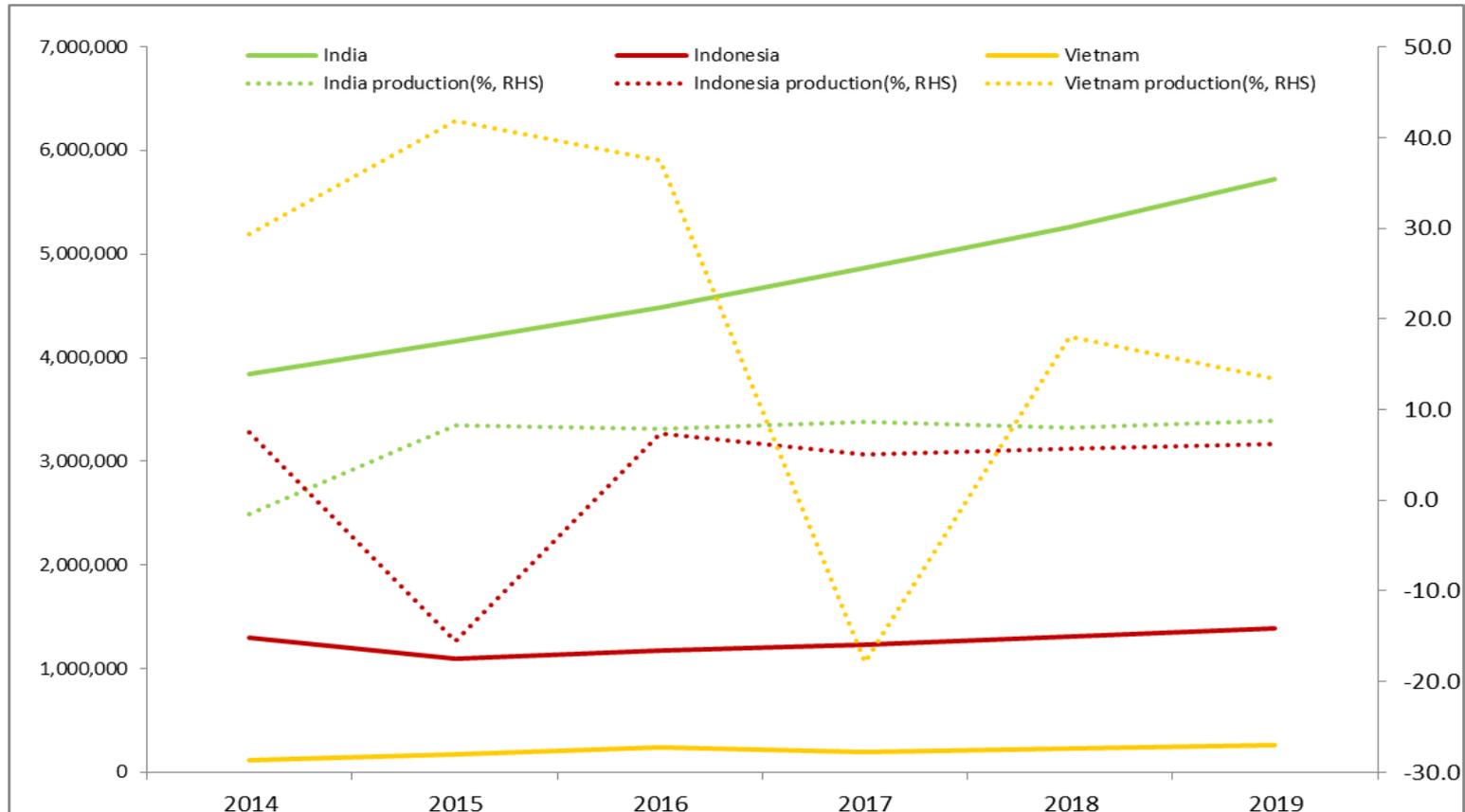
- 인도 등 3개국 건설(건축·인프라) 산업 시장규모(십억 달러):
건축 부문 증가율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순



자료: BMI.

Chapter III. 석유화학 산업

□ 인도 등 3개국 자동차 산업 생산규모 및 증가률(대, %): 인도 생산 증가율이 인도네시아 보다 높은 수준



자료: BMI.

Chapter III. 석유화학 산업

□ 인도 석유화학 산업 강점 및 기회 요인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경제구역(SEZ)에 신규 생산단지 설치를 통해 석유화학 허브국가화 추진.○ 주요 석유화학 기업은 신규 제품(products) 출시 계획을 제시함.○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폴리머 및 플라스틱 수요가 견조하며,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큼.○ 인도는 세계 4위의 비료 생산국임.○ 납사 의존도를 줄이는 신기술 투자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석유화학 시설 확대에 이어질 수 있음.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디 정부의 자유화 정책 추진으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음.○ 낮은 납사 가격으로 인해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음(납사 수출).○ 공공 보유 주식의 추가 매각 가능성이 있음.○ 정부는 점진적으로 관세와 물가에 관한 통제를 완화하고 있음.○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1인당 소비수준이 낮아, 잠재수요가 풍부함.

Chapter III. 석유화학 산업

□ 인도 석유화학 산업 약점 및 위협 요인

<p>약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석유화학 산업은 원료 수입에 여전히 의존함. ○ 정부 주식매각과 사업 파트너십은 관료주의로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 정부의 석유화학제품 수출 계획은 중국 등 아시아의 여타 성장시장으로부터의 경쟁에 직면할 수 있음.
<p>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피화 가치하락시 원료비가 상승하고 마진이 축소될 수 있음. ○ 중동과 아시아 생산능력 확대로 인해 경쟁이 증가함. ○ 석유화학 투자의 중심인 특별경제구역(SEZ) 설치에 대한 농민 등의 반발로 일부 프로젝트가 취소될 위험이 있음(구자라트 Dahej 이외에는 의미있는 진전이 없음). ○ 환경이슈(environmental clearances), 토지취득 문제 등으로 석유화학 플랜트 개발이 지체될 수 있음.

Chapter III. 석유화학 산업

□ 인도 석유화학 산업 개요

- 화학 산업은 GDP의 약 3% 차지.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은 주력 수출품목.
- 자동차산업 발전 등으로 석유화학을 포함한 화학산업의 규모는 2020년 2,8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 2014년 모디정부 출범 이후 자국내 초과 공급량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특별경제구역 설정 등 지원
- 석유화학산업은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웨스트벵갈 주에 88%가 집중되어 있음.
- 석유화학제품 생산구조는 기초원료에서 하류제품 또는 최종소비재까지 모두 생산하는 수직계열화를 이룸.

□ 인도 석유화학 산업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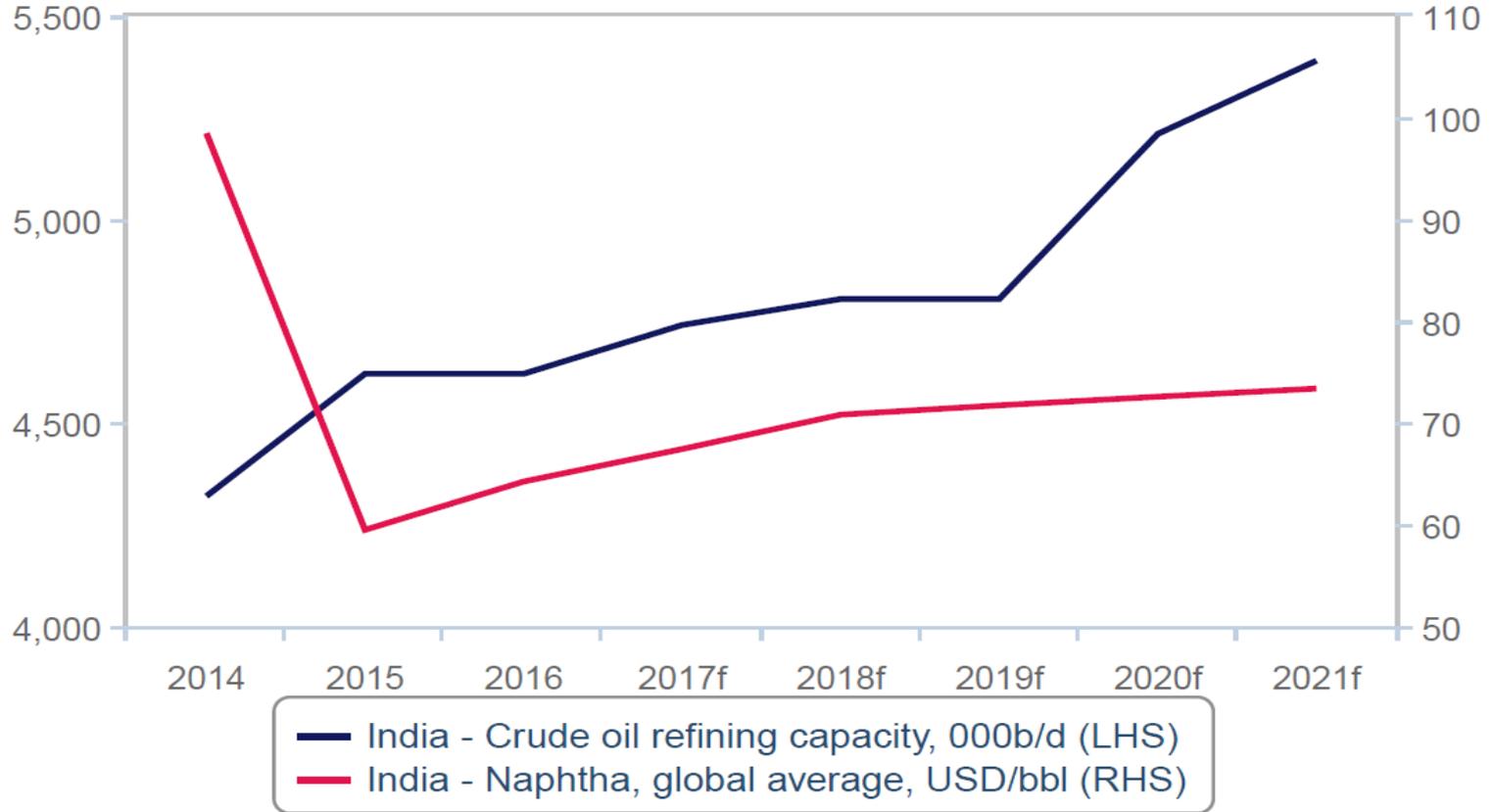
- 1인당 석유화학제품 소비(세계 소비량의 1/5 수준)가 2021년까지 2배로 급증할 전망(BMI).
- 신규 플랜트들이 생산을 개시할 예정으로 석유화학제품 생산에 긍정적 측면을 제공할 전망이다.
 - 2017년 2분기 다운스트림 오일 메이저(Indian Oil Corporation, Bharat Petroleum Corporation, Hindustan Petroleum Corporation)는 세계 최대에 가까운 통합 정유·석유화학 단지 계획을 발표함.
- * 마하라슈트라주(Ratnagiri district)에 연간 생산능력 6천 만 톤 규모(2022년 시운전, 1단계 4천만 톤(아로마틱 단지, 납사 분해시설, 폴리머 단지 포함))

□ 인도 석유화학 산업 동향 및 전망

- Reliance는 구자라트주 Dahej 석유화학 단지에 15억 달러 규모의 에탄 플랜트 시운전을 했다고 2017년 4월 발표함.
 - * 동사는 미국에서 연간 1.6백만 톤의 에탄을 수입할 계획으로, 프로판·납사 의존도를 축소하고 에탄으로 대체 추진 (2017년 기준 에탄 수입 비용은 납사의 약 30% 수준임)
- Reliance는 또한 구자라트주에 연산 2.2백만 톤 규모의 파라자일렌 플랜트를 완공함으로써 세계 2위의 PX 생산기업이 됨.
 - * 최대 생산능력 기준, Reliance의 PX 플랜트는 연간 2.7백만 톤의 헤비 납사(heavy naphtha)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여 헤비 납사 수입이 향후 증가할 수 있음.

Chapter III. 석유화학 산업

□ 인도 정유능력 및 납사 가격 추이: 2020년 이후 정유능력 크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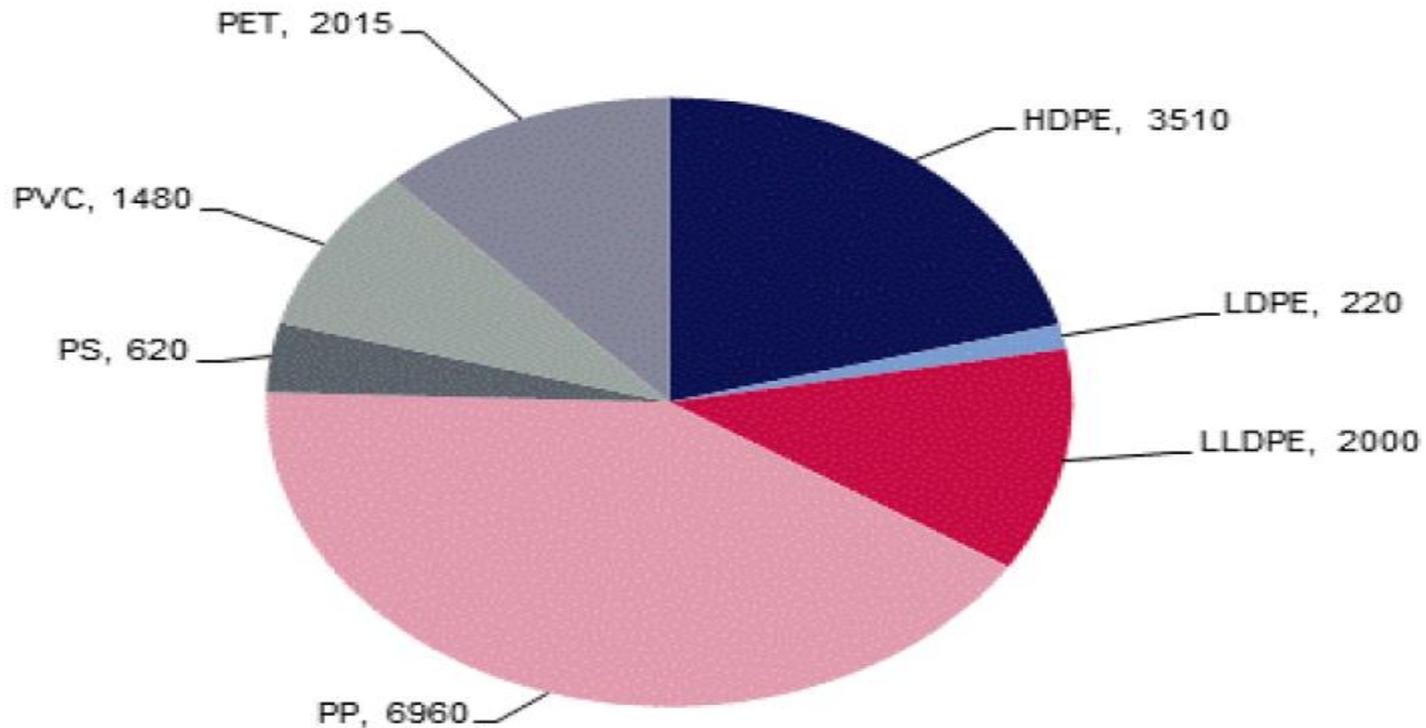


자료: BMI.

Chapter III. 석유화학 산업

□ 인도 석유화학 산업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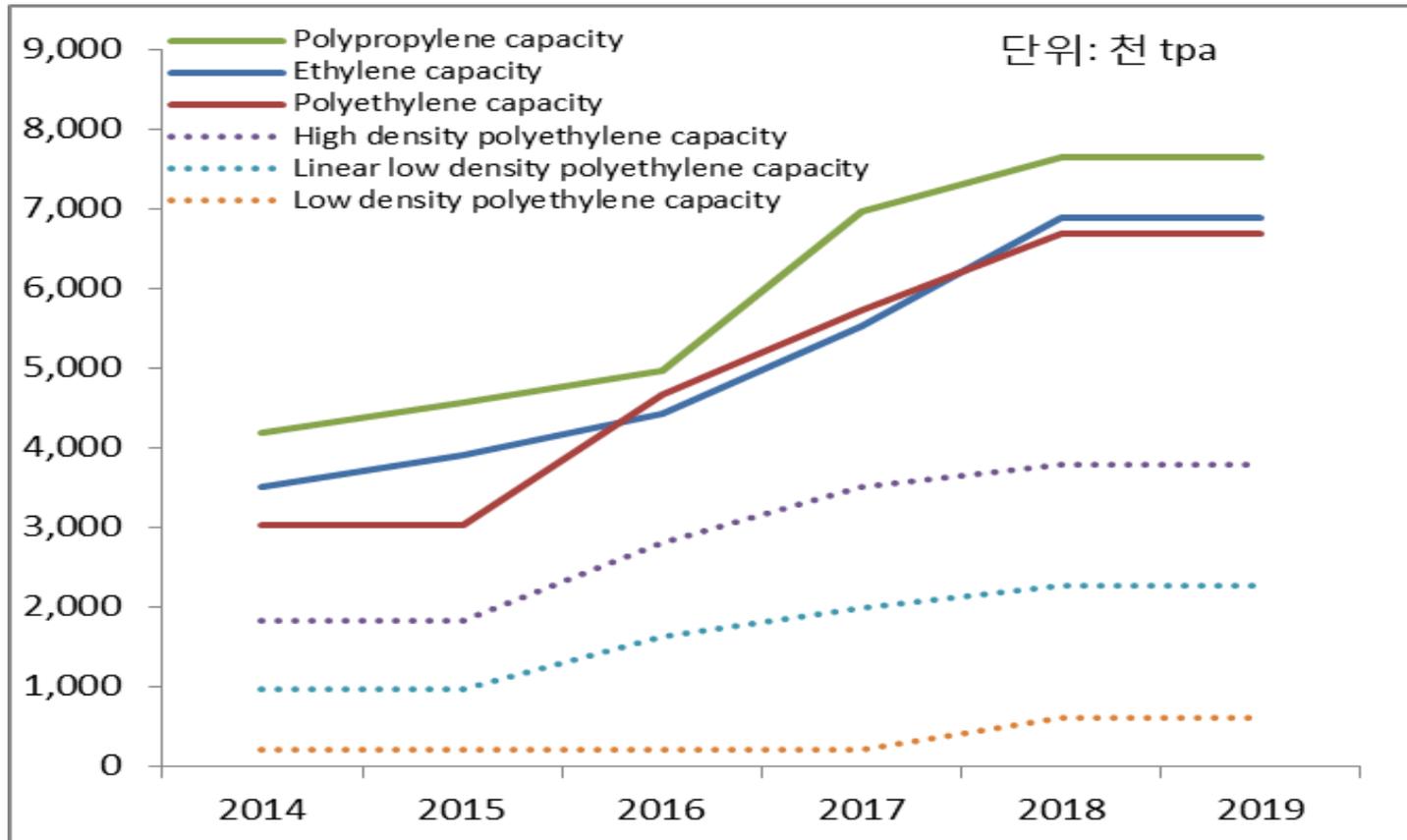
○ 부문별 폴리머 생산능력(천 tpa, 2017년 전망): PP 우위



자료: BMI.

Chapter III. 석유화학 산업

□ 인도 석유화학 산업 생산능력: PE보다 PP 생산 우위 유지



자료: B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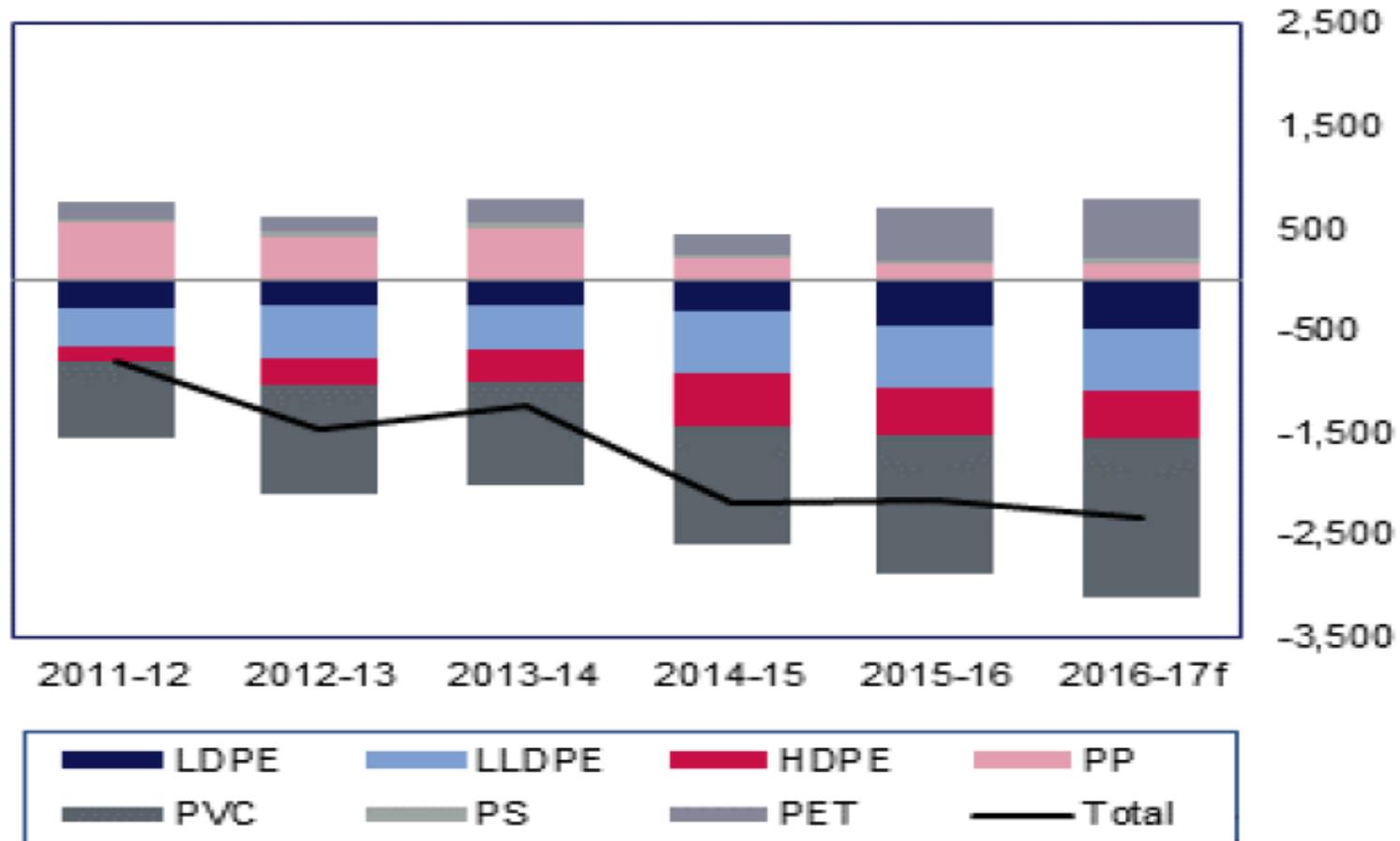
Chapter III. 석유화학 산업

□ 인도 석유화학 부문 무역 및 투자

- PVC와 PE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6/17 회계연도에는 자국내 생산능력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PVC와 LDPE 수입이 증가함.
 - 건설업 호조와 농업 부문 필요 등으로 PVC 수입이 크게 증가할 전망
 - 2017년 Reliance 연산 40만 톤 생산능력 추가로 LDPE 순수입은 zero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 수출 측면에서 PET가 2016/17 회계연도에 산업내 수출 1위를 유지함.
- * LG화학은 1990년대부터 인도에 생산법인 설립 등 투자
 - 1996년 ‘힌두스탄 폴리머’ 를 인수한 후 현재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 주 ‘비샤카파트남’ 공장에서 폴리스타이렌 (PS) 등을 생산, 공급
- * SKC는 연내에 현대차 첸나이공장 인근에 폴리우레탄 생산기지 완공 계획

Chapter III. 석유화학 산업

□ 인도 석유화학 부문 무역 (단위: 천 톤) : 인도는 PVC 수입, PET 수출



자료: BMI.

Chapter III. 석유화학 산업

□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산업 강점 및 기회 요인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납사 프로젝트들이 되살아나며, 석유화학 부문에 대해 투자자들이 다시 관심을 가짐.- 과잉설비 및 비용 우려로 중국 석유화학의 생산능력 증가가 예상만큼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생산기업에 잠재적 성장이 제공됨. 인도네시아는 수요 증가로 석유화학 투자가 증가함.○ 인도네시아는 농업국가로, 비료 등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음.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는 별도의 법률을 갖추고 중앙·지방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 수개의 특별경제구역(SEZ) 설립을 계획 중임.○ 정부는 국내 개발을 통해 원유·가스 생산 확대를 추진중으로 외국인투자를 장려함.○ 완전히 통합된 세계수준의 석유화학 단지 계획이 진행 중으로 제품 다변화 기회가 제공됨.

Chapter III. 석유화학 산업

□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산업 약점 및 위협 요인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화학 산업은 원유·가스 부문과의 통합이 열악한 수준임. ○ 올레핀의 실제 생산은 인도네시아 총생산능력에 훨씬 못 미침(수입 의존). ○ LNG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필요성과 LNG를 비료·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방안 간에 갈등이 지속됨. ○ 자원 고갈 가능성으로 석유화학 부문이 필요로 하는 원료의 부족이 초래됨. ○ 가스전들이 예상보다 일찍 고갈되어,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세계 LNG 시장을 지배하지 않음(카타르가 1위 수출국임).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적 문제와 시장에서의 경쟁 확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플랜트 폐쇄로 이어질 수 있음. ○ 연료비 상승시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 충족 실패시, 인도네시아는 자국내 생산 기업 제품보다 값싼 수입품에 시장을 개방할 수 밖에 없음.

□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산업 동향 및 전망

- 인도네시아는 석유화학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고 수입대체 정책을 통해 석유화학 자급자족을 목표로 함.
 - 1995년 최초의 에틸렌 센터인 CAP단지(Chandra Asri Petrochemical Complex) 설립.
 - SK와 합작으로 2007년부터 ‘윤활기유’ 공장을 건설하여 운영 중
 - 롯데케미칼 석유화학플랜트(100만 톤 규모 NCC) 추가 설비투자 고려 중
 - 2016년 시장 규모는 약 30억 달러 수준.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소비 수준은 낮은 단계이지만, 2.6억 명의 인구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산업 동향 및 전망

- CAP(Chandra Asri Petrochemical)가 2016~2021년 사업에 60억 달러 투자 계획 등 석유화학부문 투자 주도
 - CAP는 2016년 에틸렌 생산능력을 연산 86만 톤으로 확대. 2017년 투자는 부타디엔 및 분해시설 등에 대한 생산능력 확대 위주로 1.5억 달러 수준
- 에틸렌 생산능력은 연산 86만 톤에서 2025년부터 2백만 톤으로 증가 전망. 프로필렌 생산은 연산 47만 톤에서 1.1백만 톤으로 증가 전망
- 폴리에틸렌 생산능력은 연산 34만 톤에서 2020년 74만 톤으로 증가하고 2025년에는 154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임. PP 생산능력은 병목현상 제거시 연산 48만 톤에서 2025년 56만 톤으로 확대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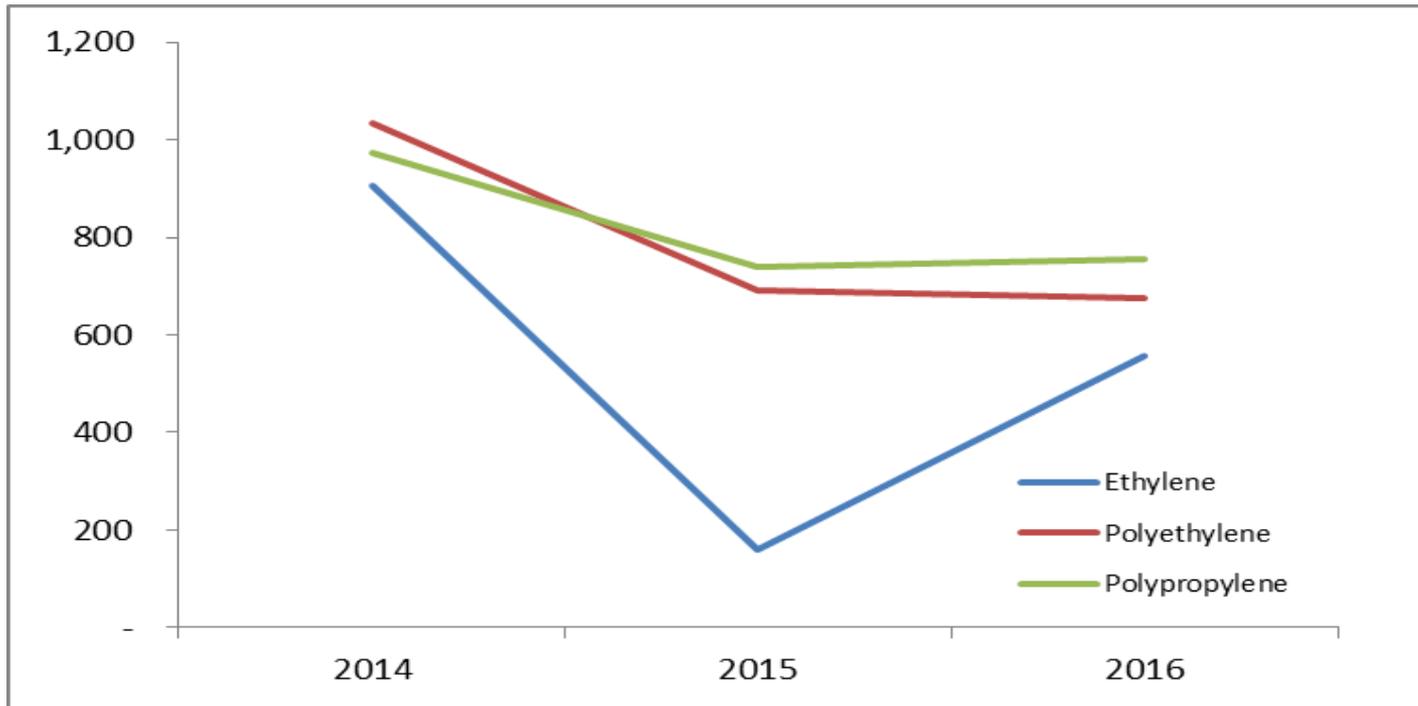
□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산업 동향 및 전망

- CAP와 Michelin의 JV는 2018년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타디엔 생산능력을 연산 10만 톤에서 2019년 13.7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
- 주거용·비주거용 건설이 2021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PVC 주요 소비산업인 건설업 전망은 긍정적
- 폴리우레탄 등 석유화학제품 소비산업인 자동차 산업(일본계 위주)은 내수가 90%를 차지해 수출이 거의 없음. 또한 국내 수요 부진 등으로 2017년 총차량 생산은 5.0%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Chapter III. 석유화학 산업

□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산업 교역

- 에틸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순수입 규모: 각각 6~7억 달러 수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및 KOTRA

Chapter III. 석유화학 산업

□ 베트남 석유화학 산업 강점 및 기회 요인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유 생산에서의 자족으로 인해 원료 부문 이점으로 석유화학산업 발전에 도움이 됨.○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요에 부응하기 좋은 지리적 위치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유시설 설치 계획, 플라스틱 및 중간 석유화학제품 생산 발전 계획○ 에틸렌 크래커(ethylene cracker)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 가스생산 증가로 석유화학제품 생산원료가 공급될 수 있음.

자료: BMI.

Chapter III. 석유화학 산업

□ 베트남 석유화학 산업 약점 및 위협 요인

<p>약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유 생산능력 부족 ○ 석유화학제품 생산에 대한 높은 투입비용 ○ 외국계 석유화학 메이저의 투자 관심 제한적 (과거 사업에서 파트너들이 철수함). ○ 부지 관련 land clearance 지체로 사업이 지연됨.
<p>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은 당분간 수입 모노머 원료에 의존하고 있어, 초보적 올레핀 생산 관련 계획은 기대되지 않음. ○ 정유 사업들이 취소되어, 베트남 석유화학 잠재력이 제한되고 제품 범위가 좁아질 전망이다.

자료: BMI.

□ 베트남 석유화학 산업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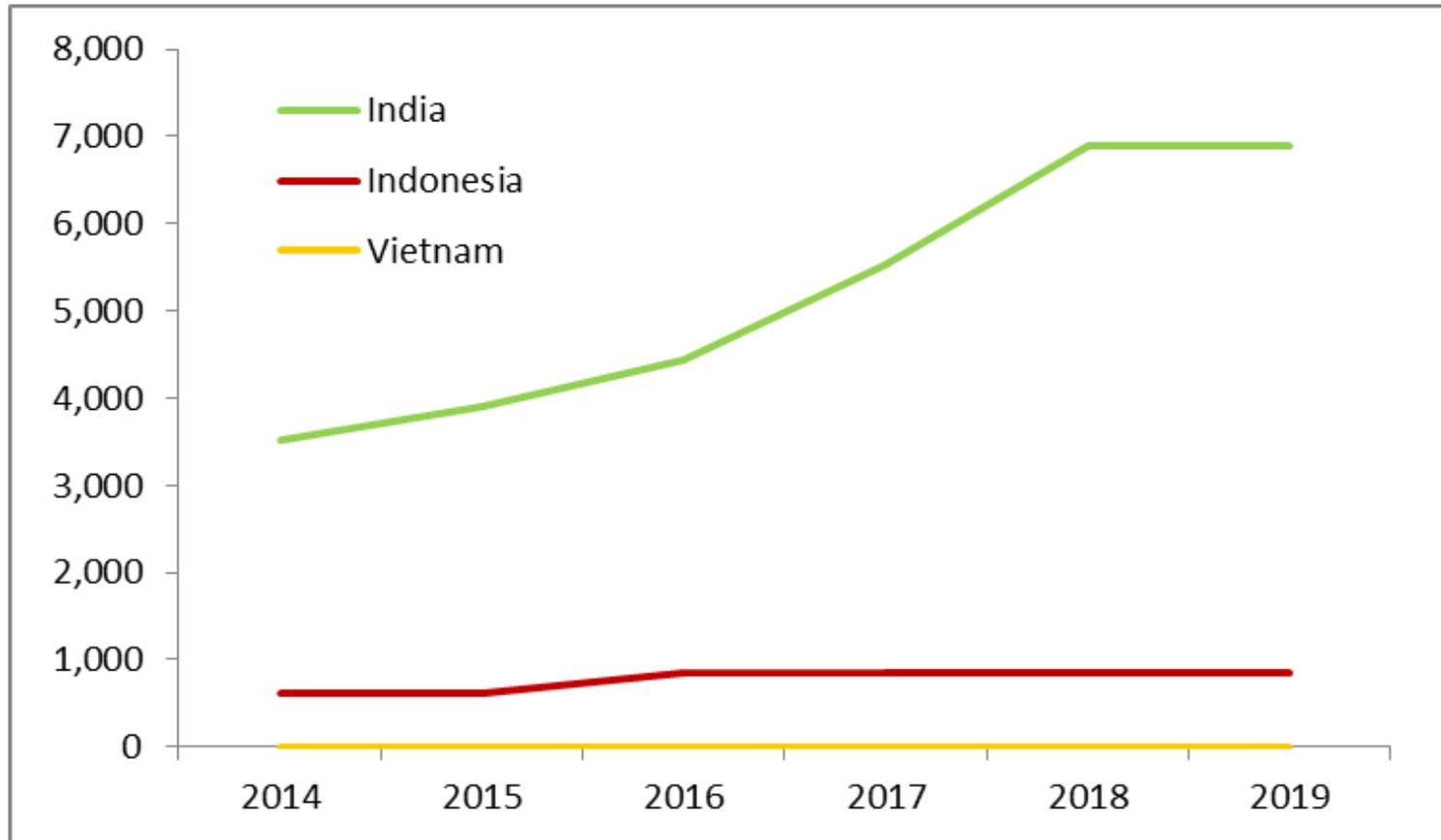
- PVN(Petro Vietnam)이 베트남 석유·가스산업 독점. 정유산업은 Petrolimax와 PVN이 양대 축을 이룸.
 - BSR(PVN의 자회사)의 중궫(Dung Quat) 정유공장: 2010년 5월부터 정유 시작. 정유능력 650만 톤에서 850만 톤으로 증대 방안 검토
- 석유화학 생산능력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 정유시설 확대가 진행 중이며, 중기적으로 폴리프로필렌 등 생산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 신규 정유화학단지(북부 Nghi Son 정유석유화학, 남부 Vung Ro Petroleum) 완공시 자일렌 연산 1.1만 톤, PP 1.1백만 톤 생산능력 추가 전망
 - PE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보여, 중동 생산기업 등의 주요 타겟이 될 전망이다.

□ 베트남 석유화학 산업 동향 및 전망

- 부지문제 (land clearance)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추가됨에 따라 **사업이 축소 또는 취소됨.**
 - 태국·카타르 투자기업이 Long Son 석유화학 단지 사업에서 **철수** (태국 기업 주도로 재추진)
 - 태국 PTT와 사우디 Aramco의 정유·석유화학 JV 사업 (에틸렌, PE)은 추진 지연으로 2016년 7월 **취소됨.**

Chapter III. 석유화학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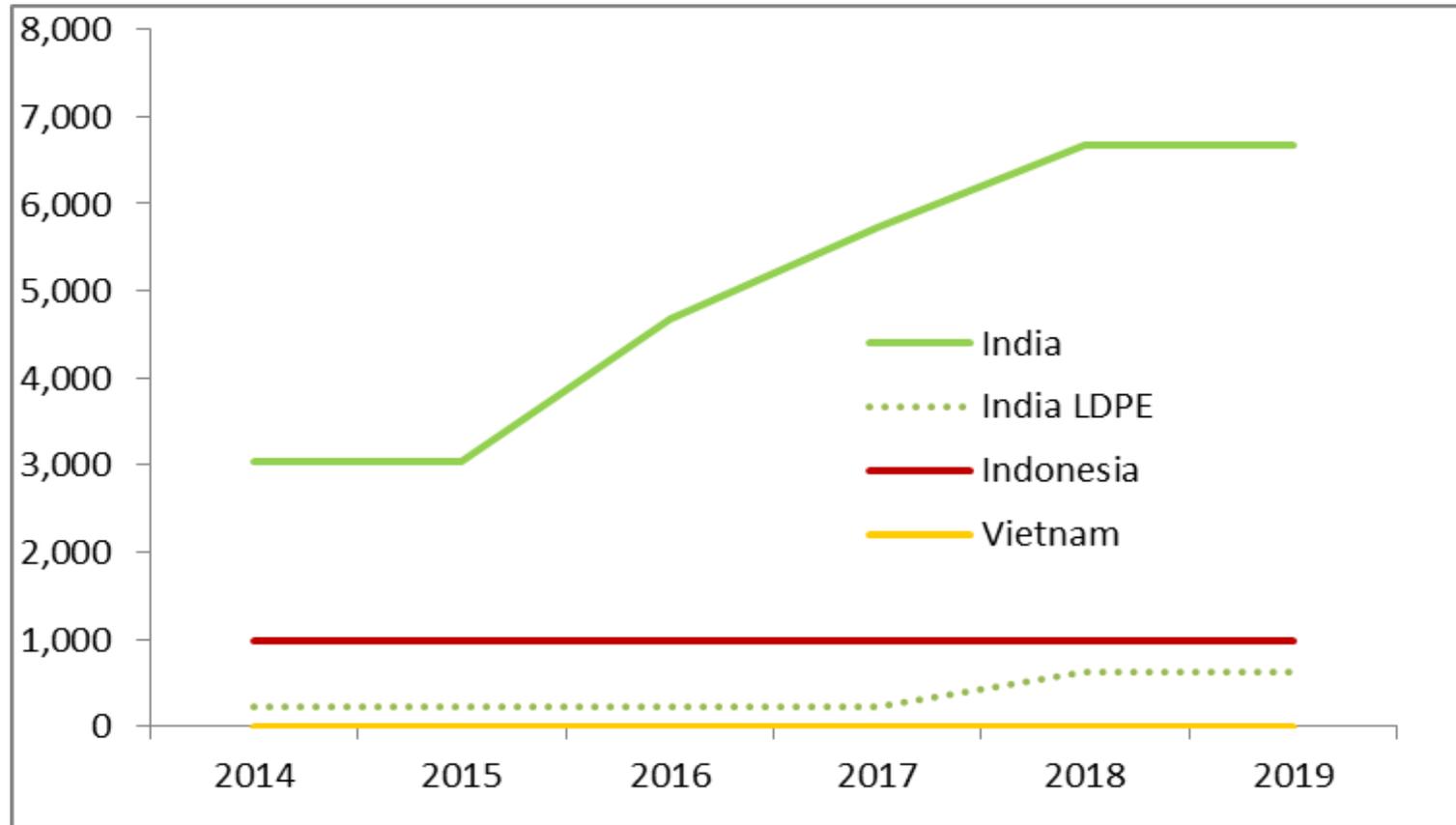
□ 3개국 에틸렌 생산능력(천 tpa): 인도 생산능력(2016년 한국의 약 절반) 확대, 베트남 수입의존



자료: BMI.

Chapter III. 석유화학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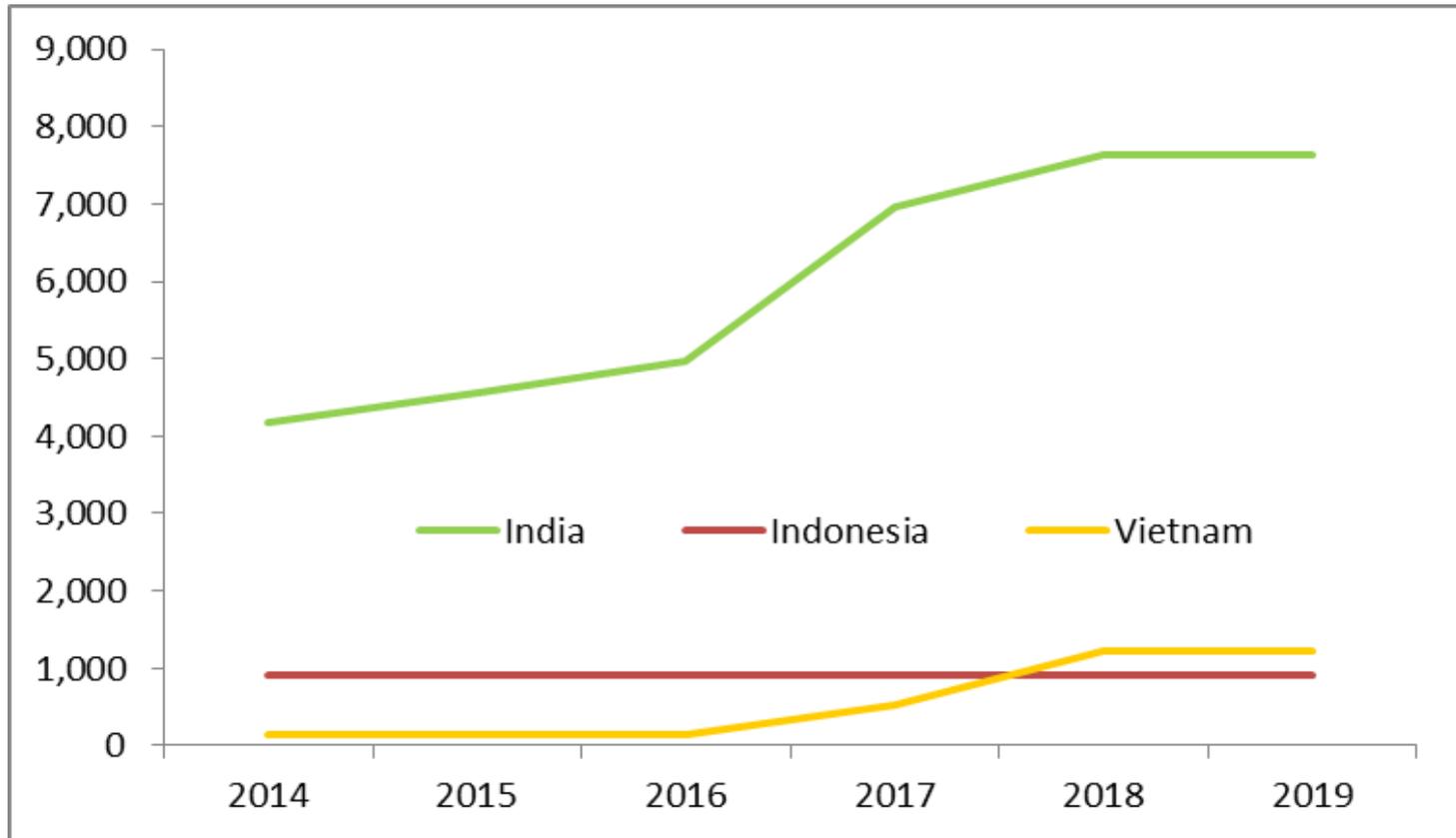
□ 3개국 PE 생산능력(천 tpa) : 인도 LDPE 등 생산능력 확대, 베트남 수입의존



자료: BMI.

Chapter III. 석유화학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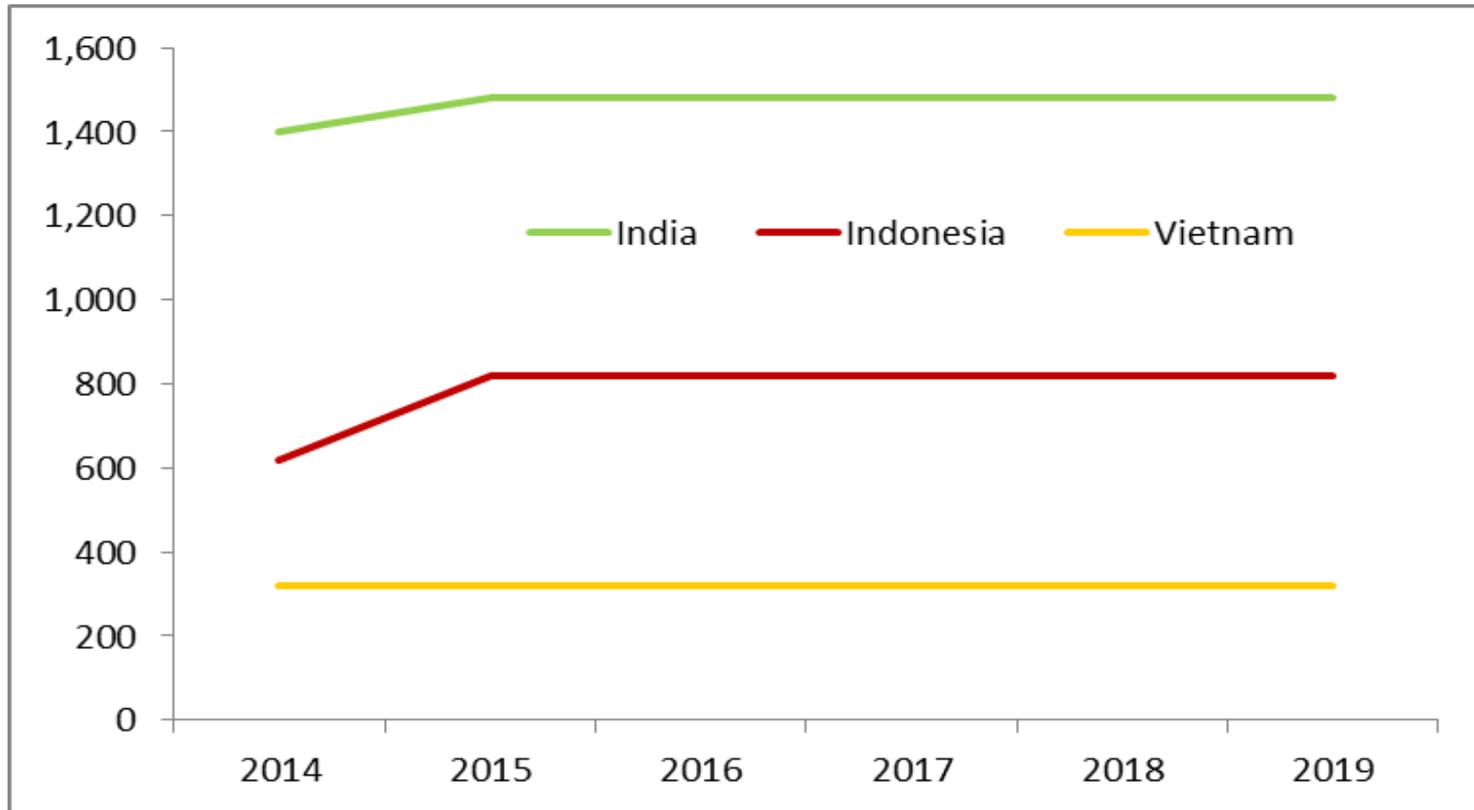
□ 3개국 폴리프로필렌 생산능력(천 tpa): 인도, 베트남 생산능력 확대(인도네시아 추월 전망)



자료: BMI.

Chapter III. 석유화학 산업

- 3개국 PVC 생산능력(천 tpa) : 3개국 생산능력 유지(인도는 도시화(20대 도시 인구가 인도 인구의 약 10%에 불과), Clean India 등으로 한화케미칼, LG화학 등 수출 유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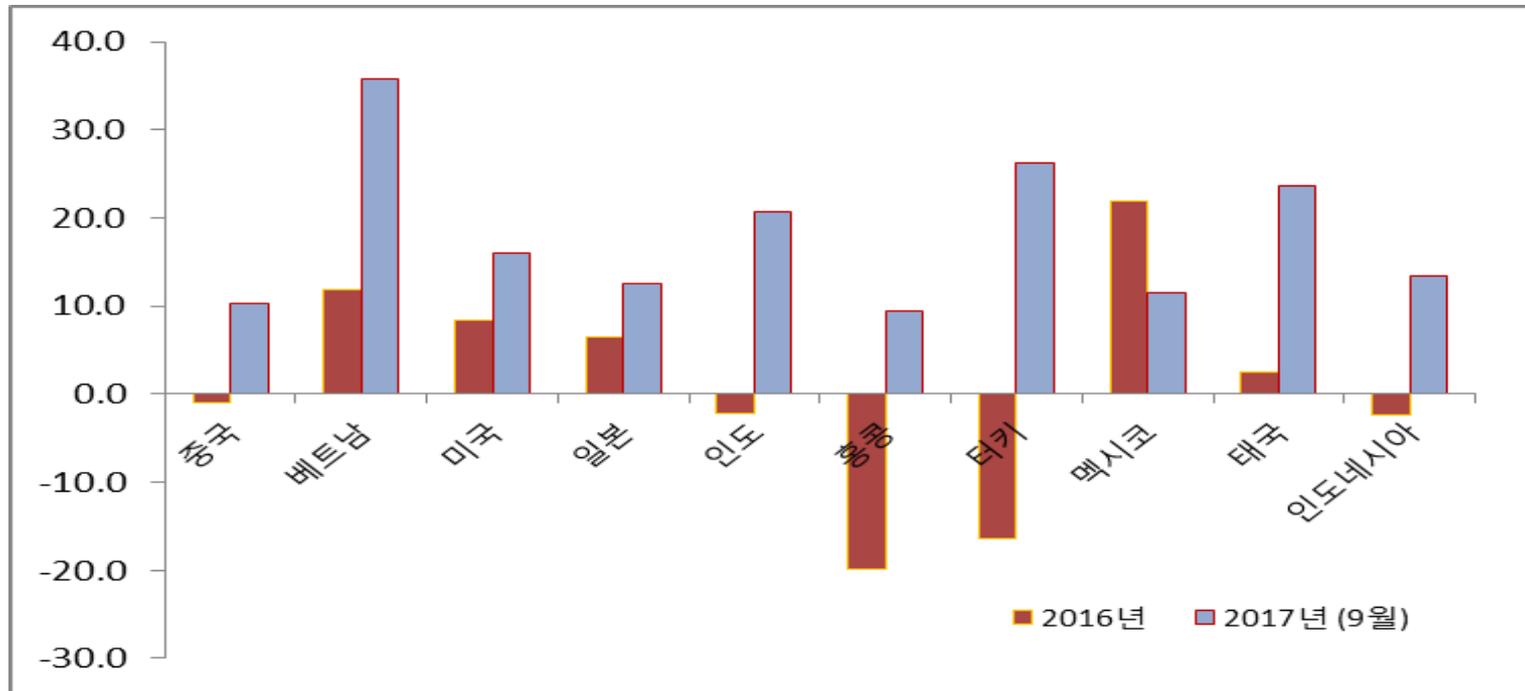


자료: BMI.

Chapter III. 석유화학 산업

□ 시장별 석유화학 수출증가율(플라스틱과 그제품(HS 39류), %):

- 2017년 10대 수출대상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전반적으로 증가
- 아시아에서는 베트남, 태국, 인도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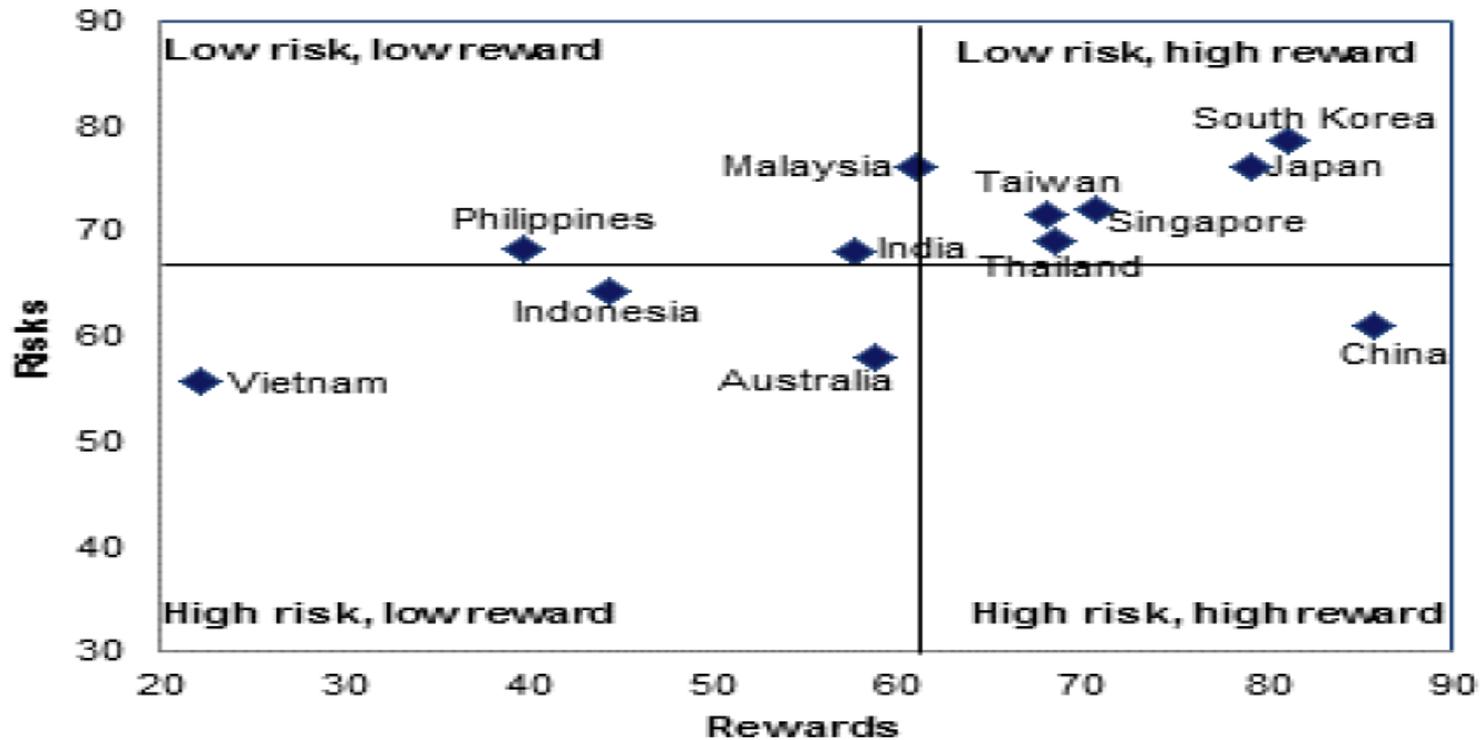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Chapter III. 석유화학 산업

□ 아시아 석유화학 위험/보상 지수: 태국, 말레이시아도 고려할 만

Asia Petrochemicals Risk/Rewards Indices (Q317)



자료: BMI.

Chapter IV. 진출시 유의사항

Chapter IV. 진출시 유의사항

1. 인도

□ 사업환경, 정치·치안 수준이 아직은 걸림돌

- 인도는 열악한 사업환경과 낮은 ‘정치·치안’ 수준이 외국인투자 유입에 걸림돌로 작용함.
 - Doing Business 지수는 발표년도 기준 2015년 189개 국 중 130위, 2016년 190개 국 중 130위, 2017년 190개 국 중 100위를 기록하는 등 아직 낮은 수준

□ 대규모 내수시장, 높은 성장률로 내수시장 지향 투자 고려 가능

- 대규모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고 있어 내수시장 지향적 투자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업환경 및 ‘정치·치안’ 수준 개선 등 추이를 지켜보고, 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

Chapter IV. 진출시 유의사항

□ 높은 법인세율 유지

- 현지법인과 외국지점에 적용하는 기본 법인세율은 각각 30%, 40%
 - 추가 부담금(Surcharge)과 교육세 부과에 따라 외국지점의 실질법인세율은 과세대상 소득이 1천만 루피 이하인 경우 41.20%, 1천만 루피 초과 및 1억 루피 이하 42.02%, 1억 루피(약 17.5억 원) 초과인 경우는 43.26% 적용
- * 인도는 이익 대비 세금·준조세 비율도 55.3%로 동아시아·태평양 평균(33.6%) 및 남아시아 평균(43.0%)에 비해 높은 편

□ 반덤핑규제 등 수입규제가 많은 나라

- 1991년 이후 자유시장경제 도입 중이나 여전히 수입대체산업 육성
 - 인도는 2016년 말 누계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가장 많은 나라로 규제 건수는 화학제품(18건) 등에 대해 반덤핑규제 27건과 세이프가드 5건 등 총 32건을 기록함.

2. 인도네시아

□ 사업환경 중위권, 정치·치안 수준 개선

- 사업환경 개선, 정치·치안 수준 개선 등으로 전반적으로 진출을 확대해야 할 시장으로 분석됨.
 - Doing Business 지수는 발표년도 기준 2015년 189개 국 중 106위, 2016년 190개 국 중 91위, 2017년 190개 국 중 72위 등 중위권 수준
 - ‘정치·치안’ 지수는 아직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나 점차 개선
- * 2004년 최초의 직선제 대선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정권교체에 성공하였으며, 2014년 군부 권력층과 무관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취임함. 간헐적 테러 등 치안 위협이 잠재되어 있으나 정부의 치안강화 노력도 이어지고 있음.

Chapter IV. 진출시 유의사항

□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평균 대비 다소 낮은 세부담

- 인도네시아 기준 법인세율은 25%로 다소 낮으며, 이익 대비 세금·준조세 비율도 30.0%로 동아시아·태평양(평균 33.6%) 및 남아시아(43.0%)에 비해 낮은 수준
- 한편, 2016년 말 누계 기준 한국에 대한 규제 건수가 화학제품(2건) 등 총 9건으로, 아시아 주요국 중 필리핀(3건), 베트남(5건)보다는 많지만 인도(32건)보다는 훨씬 적은 수준임.

□ 문화적 차이 극복 과제, 최근 최저임금 인상 고려 필요

- 인도네시아 국민 대부분이 무슬림으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야 하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사업의 경우 사업성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월별 임금(단위: 달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2017년	251	230	191	186	153	140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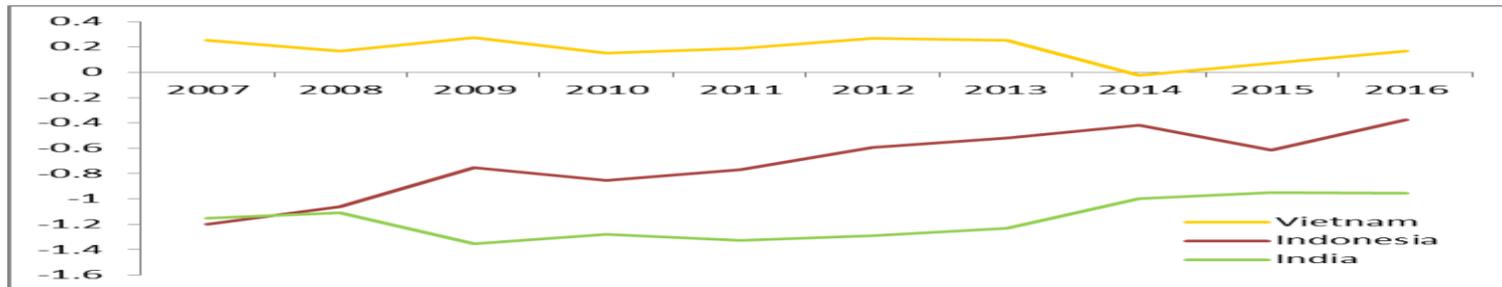
Chapter IV. 진출시 유의사항

3. 베트남

□ 사업환경 중상위권으로 상승, 정치·치안 비교적 안정

- 사업환경 개선, 정치·치안 안정 등으로 진출을 확대해야 할 시장으로 분석되나,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시장규모가 아시아 최저 수준에 불과
 - Doing Business 지수는 발표년도 기준 2015년 189개 국 중 91위, 2016년 190개 국 중 82위로, 2017년 190개 국 중 68위로 상승함.
 - 정치·치안 환경: 정치·치안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음.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Terrorism Indicator



자료: World Bank

Chapter IV. 진출시 유의사항

□ 법인세율은 낮으나 사회보장 기여 등 여타 부담이 높음.

- 베트남 기준 법인세율은 20%로 낮은 수준이나, 사회보장 기여 등 이익 대비 세금·준조세 비율이 38.1%로 동아시아·태평양(평균 33.6%)에 비해 높은 수준
- 수입규제 건수는 인도·인도네시아보다 적은 수준
 - 2016년 말 누계 기준 한국에 대한 규제 건수가 총 5건(화학제품 1건)으로, 아시아 주요국 중 인도(32건)·인도네시아(9건)보다 적은 수준
-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필리핀 등에 비해 저임금으로 경쟁력이 있고, 의류 등 부가가치가 낮은 사업도 가능

월 최저임금(단위: 달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2017년	251	230	191	186	153	140	53

감사합니다